

# 새 조국건설시기 지식인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강 호 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적극 교양개조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키워내며 모든 인테리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된 인테리로 만들데 대한 현명한 인테리정책을 내놓으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409페이지)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에 들어선 우리 인민앞에 가로놓인 수많은 애로와 난관중에서 지식인문제해결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나라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말미암아 지식인이 얼마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오랜 지식인문제를 옹계 해결하는것과 함께 새 지식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새 조국건설시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지식인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지식인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먼저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내놓으시여 지식인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신것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건설에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낡은 사회에 복무한 지식인들을 적극 교양개조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며 모든 지식인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된 지식인으로 만드는것을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정책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지식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한 독창적인 정책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지식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인테리정책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지식인을 여러 계급의 출신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층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로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한다고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지식인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과 특히 식민지지식인의 혁명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지식인은 혁명의 담당자로서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주체를 이루며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추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기초하여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지식인을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내세우시였을뿐아니라 해방직후에는 그들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영원한 동행자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식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지식인문제를 가장 옹계 해결할수 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정책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식인문제를 옹계 해결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정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식인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하며 그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식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식인문제해결의 과학적인 방도를 새롭게 밝혀주시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전 로정에서 지식인문제를 옹바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새 조국건설시기 지식인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신것이다.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지식인문제를 해결하여야 새 조국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오랜 지식인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새 조국건설에 인입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공화국북반부에 대학이 하나도 없었던 조건에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지식인들을 키워내는 방법으로 당장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지식인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을 세워 새로운 지식인대렬을 마련할 때까지 새 조국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미룰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지식인들을 포섭하여 새 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와 그해 11월 17일 평양시내 교원, 인테리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건국사업에서 인테리들앞에 나서는 과업》에서 해방직후 같길 몰라 헤매이던 오랜 지식인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일부 지식인들이 오늘의 복잡한 정치정세에서 어느 길로 나아갈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하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이 나아갈 길은 명백하다고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기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넓은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오랜 지식인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쁨에 넘쳐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다.

오랜 지식인들가운데는 과거생활을 두고 량심의 가책을 받으며 지방에 은거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고향으로 가려고 남행길에 올랐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쪽배에 몸을 실고 38° 선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지식인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지식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어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은 공화국북반부의 지식인들은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섰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위촉장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교원들, 과학자, 문화인들도 감격에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평양으로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국각지에 널려있던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새 조국건설의 주요직책들에 내세워주시였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적극 보호해주시였다. 그리고 오랜 지식인들이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로동계급의 높은 조직성, 혁명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을 각급 당학교나 간부학교들에 보내어 그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오랜 지식인들은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지식인들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 문제를 빗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당면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해방후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양성기지들을 창설하고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먼저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들을 키워낼수 있는 튼튼한 민족간부양성기지들을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1월 3일 교육부문 일군들과 하신 담화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와 그해 11월 18일 대학기성회 발기인들과 하신 담화에서 **김일성종합대학**창설과 관련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창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불과 몇달동안에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주체35(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는 사업과 함께 각 지방에 공업대학과 의학대학을 내오며 **김일성종합대학**의 일부 학부들을 단과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지식인들을 키워낼수 있는 기지를 창설하시는 한편 인재육성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관철해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진 인재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도록 하시면서 사회과학과목교수사업에서는 학생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며 자연과학과목교수사업에서는 학생들을 조선혁명에 필요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과 기술을 가진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우는데로 지향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는 사회과학과목들을 잘 가르칠수 있게 학과목을 바로 선정하고 그 내용들을 편성하였으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강습과 교수경험발표회, 사회과학토론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회과학과목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나갔다.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평양공업대학(당시)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에서는 전공학과들을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학생들을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산지식으로 무장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각급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는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실천능력을 키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통한 학생 교양사업도 힘있게 벌려 학생들을 새 조선의 참다운 정치활동가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육성문제가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민족지식인대오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그들은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갔다.

이처럼 오랜 지식인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냄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지식인대오를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시기 지식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과학과 기술로써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